

22살 청년 마스터스 준우승... 꿈의 무대 '임성재' 새기다



내일을 향해 ~ 임성재가 16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열린 PGA 투어 마스터스 4라운드 12번 홀에서 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언더파 268타 공동 2위
최경주 3위 넘어 아시아 최고 성적
상금 11억...정상급 선수로
그린자켓은 20언더 더스틴 존슨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사상 최초로 아시아 국적의 신인상 수상 기록을 남긴 임성재(22)가 또 하나의 아시아 남자 골퍼에 이정표를 세웠다.

임성재는 16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파72·7475야드)에서 열린 제84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총상금 1150만달러)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로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15언더파 273타를 기록한 임성재는 캐머런 스미스(호주)와 함께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1위 더스틴 존슨(미국)의 20언더파 268타와는 5타 차이가 났다. 공동 2위 상금은 101만 2000달러(약 11억 2000만원)다.

임성재는 이로써 '명인 열전'으로 불리는 마스터스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첫 아시아 국적 선수가 됐다.

아시아 선수로 이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선수는 지난해까지 2004년 3위에 오른 최경주(50)였다.

3라운드까지 존슨에 4타 뒤진 공동 2위였던 임성재는 한국 선수 최초로 마스터스 최종 라운드 챔피언으로 이날 4라운드를 시작했다.

경기 초반에는 존슨을 1타 차까지 압박하며 역전

분위기가까지 띄웠다.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임성재는 7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이 그린을 넘겨 벙커로 향하면서 또 보기가 나왔다.

1타까지 좁혔던 간격이 다시 4타로 벌어지면서 맥이 풀렸고, 결국 이 간격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다시 좁혀지지 않았다.

임성재는 이번 대회 4라운드 동안 임성재는 버디 24개를 기록해 출전 선수 가운데 최다를 기록했다. 임성재 외에 패트릭 리드(미국)도 24개의 버디로 이 부문 공동 1위에 올랐다.

또 퍼트수에서는 임성재가 102개를 기록해 최소를 기록했다. 임성재 다음으로 적은 퍼트 수를 기록한 선수는 캐머런 스미스(호주)로 108개였다.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한 더스틴 존슨(미국)은 버디 수 20개, 퍼트 수는 117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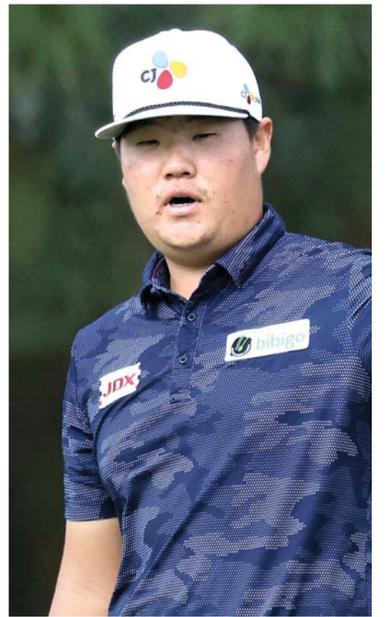
임성재는 올해 마스터스 데뷔전을 치르면서도 준우승에 최다 버디와 최소 퍼트를 기록하는 등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작년까지 마스터스 데뷔전을 치른 선수의 최고 성적은 2011년 제이슨 데이(호주)의 12언더파 276타였는데 올해 임성재가 이 기록을 3타나 경신했다. 또 역대 마스터스에서 5위 안에 든 선수 가운데 세 번째 최연소 기록도 세웠다.

1998년 3월생인 임성재(22세 8개월)보다 어린 나이에 마스터스 '톱5'에 이름을 올린 선수는 1997년 우승자 타이거 우즈(21세 4개월), 2014년 준우승자 조던 스피스(이상 미국·20세 9개월) 두 명뿐이다.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임성재는 네 살 때 제주도로 이주해 어린 시절을 보냈고, 중·고교 시절 충남 천안 골프 아카데미에서 골퍼를 배웠다. 천안고를 나온 그는 한국체대 체육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2016년부터 2년간 한국과 일본에서 투어 생활을 병행한 그는 2018년부터 미국으로 진출, 그해 미국프로골프(PGA) 2부 투어 올해의 선수를 받고



임성재

2019시즌 PGA 정규 투어에 입문했다.

2019시즌 PGA 투어 사상 최초로 아시아 국적 선수의 신인왕에 등극한 그는 2018년 PGA 2부 투어에서 2승, 2019년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 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 우승, 올해는 PGA 투어 혼다 클래식 우승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PGA 투어 데뷔 후 2년 연속 상위 30명만 출전하는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했고, 메이저 대회 준우승 이력까지 추가하며 세계 정상급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연합뉴스

파 3서 10타... 우즈가 기가막혀

지난해 승기 잡았던 12번 홀서 샷투플 보기...38위 마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5·미국)가 2년 연속 우승에 도전장을 던졌던 '명인 열전'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한 홀에서만 10타를 치는 수모를 당했다.

우즈는 16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끝난 제84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최종합계 1언더파 287타로 공동 38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 2008년 US오픈 이후 11년 만에 메이저 왕좌에 복귀했던 우즈는 올해 2년 연속 우승을 노렸으나 메이저 우승은 2021년을 기약하게 됐다.

그는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4언더파를 치며 선두에 3타 뒤진 공동 5위로 상쾌하게 출발했지만 이후 순위를 더 올리지 못했다.

우즈는 이날 12번 홀(파3)에서 10타를 치고, 이 홀에서만 7타를 잃는 참사를 겪었다.

155야드인 이 홀에서 우즈는 첫 티샷을 물속으로

보냈다. 다음 샷은 그린 위에 안착하는 듯했지만 다시 물속으로 굴러 들어갔고, 다섯 번째 샷은 그린 뒤 벙커로 향했다.

벙커에서 친 샷이 또 물속으로 빠졌고, 다시 벙커에서 불안정한 스탠스로 친 샷으로 공을 겨우 그린 위에 올렸다. 8타 만이었다.

샷투플 보기라는 생소한 용어로 12번 홀을 마친 우즈는 자신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한 홀 최다 타수 기록을 경신했다. 종전 기록은 23년 전인 1997년 메모리얼 토너먼트 3번 홀(파3)에서 친 9타였다.

우즈는 지난해 마스터스에서 우승할 때는 12번 홀에서 승기를 잡았다.

당시 최종 라운드 11번 홀까지 프란체스코 몰리나리(이탈리아)에게 2타 차로 끌려갔으나 몰리나리가 12번 홀에서 공을 물에 빠트리며 2타를 잃었고, 우즈는 이 홀을 파로 막아 동타가 됐다.



우즈는 이날 12번 홀에서 7타를 잃은 직후인 13번부터 18번 홀까지 6개 홀에서 버디 5개를 몰아치며 12번 홀 대참사에 대해 분풀이를 했다.

이후 우즈는 시상식에서 지난해 우승자 자격으로 올해 챔피언 더스틴 존슨(미국)에게 그린 재킷을 입혀줬다. /연합뉴스

다시... 발톱 가는 호랑이 군단

KIA 1군 마무리 캠프...윌리엄스 감독, 선수단 체질 대전환 돌입

'호랑이 군단'이 2021시즌을 위해 발톱을 간다. KIA 타이거즈 1군 선수단이 휴식을 끝내고 16일 챔피언스필드에 다시 모였다.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월, 수, 금 격일제로 훈련을 하며 한 시즌을 정리하고 2021시즌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다.

'맞춤형'과 '힘'이 이번 캠프의 키워드다.

윌리엄스 감독은 한 시즌을 보내며 머릿속에 선수들에 대한 정보 입력을 끝냈다. 대회를 통해서도 선수들이 원하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파악, 직접 맞춤형 스케줄을 짜다.

또 예전의 마무리캠프와 달리 기술을 배제했다. 자신의 기술을 100% 발휘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이번 마무리캠프의 주제다.

"선수들을 다시 봐서 좋다"며 첫 훈련에 나선 소감을 언급한 윌리엄스 감독은 "2주간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배운 프로그램을 잘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체적으로 힘, 근력에 신경 쓸 생각이다. 여름 기간 몸을 쓰는 활동을 해왔다. 몸을 재충전하고 다시 만드는 시간이다"고 언급했다.

'윌리엄스식'으로 선수단 체질을 바꾸기 위해 그는 선수들에게 변화를 주문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선수들, 관계자들에게 야구공을 만지지 말라고 설득을 해야 했다(웃음)"며 "지금부터 (휴식기가 시작되는) 12월 1일까지는 평고, 투구, 타격 훈련도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내 경험에 비추보면 이렇게 하면 정신적으로 휴식을 줄 수 있다. 좋은 한 해를 보낸 선수는 내년을 준비할 수 있게 더 동기부여가 되는 점도 좋고, 시즌 결과가 좋지 않았던 선수들은 안 좋았던 것을 잊어 버리고 새로 계획하고 시작할 기회를 주는 시간이다"며 이유를 밝힌 윌리엄스 감독은 "전에 하던 것 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프로그램을 믿고 받아들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선수들에게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감독의 '맞춤형 스케줄'은 세밀하다. 나지완을 예로 든 그는 "나지완과 박찬호의 프로그램은 다르다. 선수마다 다르니까 최대한 선수들이 필요한 것에 포인트를 잡았다. 나지완은 시즌 중에 유연성을 보장하고 싶다고 했다. 움직임, 민첩성, 체중조절도 이야기했다. 장점은 더 강화시키고 싶다고 했다"며 "부상 없이 건강했던 게 나지완의 올 시즌에 도움이 됐다. 나지완과 면담해서 그런 부



KIA 타이거즈의 이진영(왼쪽부터), 최원준, 이창진, 한준수가 1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러닝을 하고 있다.

분에 집중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집중력 있게 훈련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스케줄도 고심했다. 환경면 시설 탓에 선수들은 9시 투수조 훈련을 시작으로 외야수·포수조(오전 11시 30분), 내야수조(오후 2시)로 나눠 훈련한다.

또 웨이트에 초점을 맞춘 훈련이기 때문에 격일

제로 경기장을 찾는다.

윌리엄스 감독은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하고 있다. 프로그램 자체도 1주일에 6시간만 하면 되고 개인적으로 지치거나 하지 않도록 했다"며 "웨이트를 매일 할 수 없다. 근력과 힘을 키우려면 쉬는 것도 중요하다. 기술적인 부분은 반복이 중요하지만

웨이트는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이번 마무리캠프를 설명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영양섭취, 수분섭취에 관한 책자도 배포하면서 선수들의 자율적인 책임도 강조했다. 확 달라진 마무리캠프가 KIA의 체질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글·사진·김여울 기자·wool@